

불자 세상보기



석길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장

42회째를 맞이하는 세계경제포럼, 매년 1~2월에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개최된다고 하여 일명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전망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민간회의이다.

민간회의라고는 하지만,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 소위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조율(?)하려는 성격을 가진, 실상은 사회 상위계층 1%끼리 반공격적으로 쑥덕거리는 그들만의 리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그들만의 리그에 올리는 재미있는 주제가 개막 세션의 주제로 내걸렸다.

“20세기 자본주의는 21세기 사회에서 실패한 것인가?”

거창하게 각 국가사회 나아가 세계 전체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의도하고 있는 듯하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미국의 주도로 거세게 휘몰아쳤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혜택을 독점하였던 1%의 그들이, 99%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내건 것에 불과하다.

너무 시니컬한 평가인 듯도 하지만, 우리 사회뿐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중산층의 몰락이, 그 몰락을 대가로 1%의 성벽을 더욱 두텁게 쌓을 수 있었던 이들의 고민 아닌가.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고민이 부의 재분배라든가 하는 좀더 희망적인 방향성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호모감을 띠는 듯하다.

그러나 다시 그 주제를 읽어보면 “우리의 독점적 우위를 확실하게 보증해준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 21세기에든 여전히 우리의 독점적 우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머지 99%가 당연한 수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들어있는 내재적 심리는 향유해왔던 그리고 향유하고 있는 매력적인 예전의 대상인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유’를 어떻게 하면 좀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을 까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가능하게 해온 20세기의 자본주의의 곧 ‘사회 내부의 그리고 세계를 아우르는 범세계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적 폭력’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한 생각의 정점에 존재하는 것은 ‘욕망의 지속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미 99%는 저항하고 있고,

그 저항하는 99%가 가진 생각의 정점에 있는 것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생존의 지속가능성’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보스 포럼에서 또 하나 심도있게 다루어진 것은 어떻게 전 세계 자본주의의 체제가 최소한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였다. 최소한의 성장, 곧 발전과 확장이 지속되는 한, 그 만큼의 먹고살에 한정하여 쪼끔 나누어주고 달려면 되는 것이니까, 아이의 과자봉지를 통째로 빼앗아서는 아이가 울 때마다 그 과자봉지 안의 과자를 한 개씩 건네어 달래겠다는 속셈이다.

너무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보시바라밀’을 사회적 실천의 첫걸음이거나 개인적 완성의 토대로 삼아온 대승불교 집단의 일원으로서 오히려 그 냉소는 당연한 것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사회의 제도적 폭력을 번연히 실행하면서도 쥐고랑지만한 생존을타라가 무너질까 저어하고, 행여나 저 성장의 떡고물을 조금이라도 더 뽐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망이 스멀거리는 스스로의 작태를 자각하다 보면 오히려 당연하게도 느껴진다.

나눔은 보살행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나눔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고

민한다.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지금 겨우 이어가고 있는 최소한의 생존에서 탈락하지 않을지를, 아마도 작태의 절망성을 자각하고 있는 보살님들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사회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은 돌려도 좋지 않을까. 나는 그 시선의 방향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설치’로 돌릴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좀더 많은 99%에게 생존에 대한 절박감이 아니라, 행복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근대 이전 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의 최대 존재 가치 중의 하나는 이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노선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종교마저도 ‘근대’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휩쓸려 자본에 대한 갈망, 욕망의 확대에 충실해진 지가 오래인 것도 사실이다.

이제 내가 속한 한국불교사회에 요청하고 싶다. 우리가 지난 날 지녔던 최대존재 가치를 이제는 되돌려 받자고. 누구에게서?

미안한 말이지만, 스스로에게서 부터이다.

社說

美서 기립박수 받은 진제 스님

조계종 차기 종정 진제 스님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 한국 불교계로는 최초로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차 방문한 스님은 1월 30일에는 세계 각국 종교지도자들, 2월 1일에는 전세계 국가지도자들을 만났다. 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는 국가조찬기도회 본행사에 참석했다.

진제 스님은 미국 일정 내내 종교평화와 간화선의 세계를 주창했다. 이는 종정 추대 전부터 풀니터 교사와의 종교간 대화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렸던 스님의 발원이었다. 이제는 차기 종정이 되어 주창자에 2000만 한국 불자의 염원을 담아 전세계에 범음을 전한 것이다.

진제 스님은 2월 1일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지도자세미나’에서 180여 개국 1200여 명의 국제지

도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봄이 오니 100가지 꽃은 누구를 위해 피었는고? 자고새 우는 곳에 100가지 꽃이 향기롭다”라고 선시로 법문이 마무리되자 1200여명 전원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이에 앞선 1월 30일 뉴욕 맨해튼 유대교 교회인 템플 임마누엘에서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교 배화교 등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 20여 명이 자리한 세미나에서도 스님은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제 스님은 “모든 인류가 각자 생활 속에 마음을 닦는 수행을 꾸준히 해서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면 인류평화에 큰 공헌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스님의 이러한 믿음이 현실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수행해야 한다.

진각종 문화재단 설립

진각종이 2012년을 ‘종단의 문화 포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신년계획을 발표했다.

신년계획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회당문화재단 설립이다. 진각종은 올봄도 회당문화축제, 폐사지음악회, 회당학회국제학술대회 등 활발한 문화·학술 활동을 펼쳐왔다. 회당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진각종의 문화분야 역량이 총결집돼 다방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서 있을 진각문화전승원 개관법회와 함께 회당문화재단 설립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진각종은 회당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진각종의 문화분야 역량이 총결집돼 다방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진각종의 회당문화재단 설립 계획 발표는 불교계의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혜정 정사는 “회당문화재단은 진각종 불교문화의 대중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종 이후 교육·복지 사업 등을 통해 불교계에 새바람을 몰고 왔던 진각종이 회당문화재단을 통해 또 한번 불교중흥의 훈풍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한다.

사부대중 갈럼



김재영  
청보리회 법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 라자갓하의 맛다곳치 숲에 있는 미가디야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돌 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으셨다.

세존께서는 몸이 몹시 아프고 불쾌하고 언짢은 것을 심하게 느끼셨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올바르게 마음 지켜보며(sati)과 올바른 지혜로 마음을 가다듬어 고통 없이 참아내셨다. 그때 악마 빠빠만이 세존께 다가와서 말했다.

[빠빠만] “게으르게 생각에 잠겨 누워있는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은가? 홀로 외로운 휴식처에서

졸린 얼굴로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는가?”

[부대] “게으름을 피우거나 생각에 잠겨 놓지 않았고 나는 할 일을 다 마쳐 번뇌를 떠났네. 홀로 외로운 휴식처에서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며 누워 있네.

이것은 <쌍웃따니까야>에 나오는 ‘돌조각의 경(Sakalika-sutta 사갈리카 숲타)’이다. 이 짝막한 ‘돌조각의 경’은 부처님의 실제에 관해 또는 불교의 본질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1세기인 지금도 인도의 도로는 험로이다. 군데군데 비포장이고 돌들이 나뒹굴고 끊겨있기 일쑤이고 교통사고가 다반사로 많다. 2600여 년 전이야 오죽했으랴.

그런데 부처님은 이 길을 걷고 있다. 피약별을 씌며 가사와 발우를 손에 잡고 독충이 들끓는 이 험로를 맨발로 걷고 있다. 돌조각에 다쳐 피를 흘리며 걷고 있다. 말 그대로 피땀을 흘리며 걷고 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러면서 부처님은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 하소서”라고 축복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며 그들에게 답사를 설하고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상담한다. 그들의 고통을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하나 치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끊임없이 험한 길을 걸으며 담마를 전파하고 법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사셨다. 전법고행 45년, 팔십 노인이 되어 늙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부처님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사셨다.

마침내 부처님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중생들-말라죽 사람들이 지켜보는 속에 숨을 거두시고 그들 마을에 안치되고 그들 손으로 화장되고 그들 민중들에 의하여 마을 네거리에 조그맣게 뼈뭉더기모 서졌다. 그리고 그 뼈조각 하나하나가 사리가 되어 사람들을 다시 구해내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의 참담한

몰락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일부 승려의 이기적 권력구조로 변질된 앞에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속만 태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이 기사화생의 기회다. 만해 스님도 ‘밤의 어둠이 깊은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소식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희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부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조각에 발을 다쳐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 중생들을 연민하고 구원하시는 저 부처님께로, 부대 석가모니께로 돌아가, 우리도 부처님같이 사는 것이다.

한 분의 스님이라도 이렇게 부처님같이 길을 간다면, 우리 불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분의 우바세 우바이이라도 이렇게 부처님 가신 길을 따라 걸으려고 애쓰고 애쓰면, 마지않아 우리 불교 거대하고 푸르른 본래 숲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2012년 새봄이 오는 소리 들으면서, 우리는 희망으로 다가올 한분의 스님, 한분의 우바세 우바이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판물담당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불교포탈 부대피아 소풍물 연불상담팀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지사안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미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